

원 저

임상치과위생사의 포커싱적 태도가 직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노은미[†]

춘해보건대학교 치위생과

The effect of focusing manner on job performance by clinical dental hygienists

Eun-Mi Noh[†]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ner of focus and job performance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A survey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were analyz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in the correlation between job performance ability and focusing manner and appreciation of the experience process, which are sub-factors of job performance ability and focusing manner, $r=.161$ ($p<0.1$) and appropriate distance $r=.229$ ($p<0.1$) indicated a positive (+)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factors that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job performance are type of workplace ($\beta=-0.381$), focusing attitude ($\beta=0.166$), marital status ($\beta=-0.156$), and age ($\beta=0.152$). Therefore, by confirm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ocusing and job performance ability, we intend to provide the basic data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improve dental hospital management and job performance.

Key Words: Dental hygienist, Job performance, Focusing manner, Dentistry

Received: December 2, 2022 **Revised:** December 19, 2022 **Accepted after revision:** December 19, 2022

†Correspondence to Eun-Mi Noh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Daehak-Gil 9, Ungchon-myeon, Ulju-gun, Ulsan 44965, Korea

Tel: +82-52-270-0295, **Fax:** +82-52-225-0239, **E-mail:** molar@ch.ac.kr

I. 서론

최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병원들로 인해 병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도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은 모든 병원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Kim, 2013). 치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적 자원 중 전반적인 치과 이미지를 결정하고 치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적자원관리가 매우 중요하다(Kim and Han, 2016). 구강건강전문가인 치과위생사는 전문적인 지식 습득과 실무자로서의 능숙한 직무수행능력이 필요하다. 직무수행능력은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임상에서 직무를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Son et al, 2012) 지식과 기술의 습득뿐만 아니라 직무에 임하는 태도와 가치, 믿음 등을 포함한 능력을 말한다(Lee and Jang, 2016).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고 영향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치과 의료기관의 경쟁력 향상과 치과위생사의 직무능력과 자기 계발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Lee et al, 2017). 또한, 의료현장의 급속한 변화로 치과위생사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Hwang, 2020).

치과위생사의 직무는 구강보건교육자, 예방치과처치자, 치과진료협조자, 병원관리자로 나뉜다. 치과 의료현장에서의 직무가 전문화, 세분화, 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치과위생사도 전문 인력으로서 새로운 지식 함양과 질 높은 직무수행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료기관에서 진료 영역과 진료지원 영역을 총괄하여 아우를 수 있는 인적 자원인 만큼 치과위생사의 직무능력에 대한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Kim et al, 2014). 치과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치과위생사의 직무능력을 평가하고 직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치과 의료기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요하다. 최근 치과 의료기

관에서 환자의 권리는 물론이고 환자나 보호자의 만족이 중요시됨에 따라 감정 표현을 적절하게 하고 행동해야 하는 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임상 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 역시 직무능력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 되고 있다. 치과를 내원하는 환자의 의식 수준과 치과 지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수준 높은 실정이며 치과의료 환경은 환자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Cho, 2011). 치과 의료기관의 특성상 종사자는 환자의 입장과 다양한 감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적인 수용과 배려(Hwang et al, 2012)를 해야 해서 환자의 감정적인 폭언과 인권침해까지도 겪고 수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감정노동은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쳐 치과위생사의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Moon, 2015). 스트레스를 낮추는 전략으로 최근에 보고되는 개념이 포커싱적 태도이다. 포커싱적 태도는 자기를 인식하고 정서적 치유의 과정을 경험하며 신체의 감각을 자각하는 훈련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Joo, 1998). 포커싱적 태도는 평소 본인이 자각하는 문제나 고민에 대한 자신의 느낌, 감정, 기분에 집중하거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표현하게 되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고(Song and Joo, 2010) 자신의 몸이 자연스럽게 알아서 해결책도 찾게 된다는 것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보고된다(Joo and Choi, 2013). Joo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포커싱적 태도가 자기조절의 상관성이 있으며 특히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 요인들 중에서 표현하기는 자신과 타인에게서도 문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게 되어 자기 이해에 대한 도움이 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양한 상황 적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Choi, 2001). 따라서 치과위생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과 포커싱적 태도와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과정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직무수

행능력의 영향 요인으로 의사소통능력, 전문직관, 셀프리더십(Park, 2002),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적 의사결정(Park and Chung, 2016)이 제시되었다. 치과위생사의 정서적 요인과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Jung, 2014), 공감역량, 회복탄력성(Kwon and Chon, 2018)등이 있었다. 그러므로 자기 인식과 정서적 치유를 함께 알아볼 수 있는 포커싱적 태도와 직무수행능력의 관계성을 파악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포커싱적 태도와 직무수행능력의 상관성을 파악하여 치과위생사의 정서적 치유를 할 수 있는 포커싱 심리 프로그램 개발과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U시와 B시에 소재한 임상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목적, 참여의 자율성,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설명한 후 이에 동의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구글 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21년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실시하였고 총 210부를 중부적합한 12부를 제외하고 198부를 최종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연구도구

포커싱적 태도는 Yoo와 Yu(2017)의 한국판 포커싱적 태도 척도(Korean Focusing Manners Scale: KFM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요인 3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기' 14문항, '체험과정 수용과 행동하기' 10문항, '체험 지각하기' 6문항, '적절한 거리두기' 5문항이다. Likert 5점 척도

로 높은 점수일수록 포커싱적 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Cronbach' α =.928이었다.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도구는 Hwang(2020)의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구강보건교육(10문항), 예방치과처치(8문항), 치과진료협조(18문항), 경영관리지원(8문항)으로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높은 점수를 보인 경우 직무수행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Cronbach' α =.927이었다.

3. 통계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 18.0 Program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유의성 검정은 제 1종 오류수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를 사용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포커싱적 태도와 직무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증은 Duncan방법을 활용하였다. 포커싱적 태도와 직무수행능력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활용하였으며, 직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포커싱적 태도와 직무수행능력은 Table 1과 같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143명, 기혼이 55명이었고, 나이는 20~25세가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26~30세가 39명, 31세 이상이 34명 순이었다. 교육 수준은 전문대졸이 112명, 대졸은 54명, 석사 이상은 32명 순이었고 근무기관형태는 치과의원 근무가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공동운영) 42명, 치과병원 33명, 중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98)

Characteristics	Division	N	Focusing manner Mean ± SD	Job performance Mean ± SD
Marital status	Unmarried	143	3.01 ± .555	4.11 ± .394
	Married	55	3.06 ± .472	4.05 ± .528
<i>p</i> -value			.474	.000
Age (yrs)	20-25	61	2.95 ± .468	4.14 ± .401 ^b
	26-30	39	3.13 ± .620	3.96 ± .400 ^a
	≥31	34	3.01 ± .490	4.23 ± .566 ^b
<i>p</i> -value			.102	.006
Education	College	112	2.93 ± .472 ^a	4.08 ± .418
	Bachelor	54	3.08 ± .635 ^{ab}	4.05 ± .428
	≥Master	32	3.26 ± .470 ^b	4.18 ± .501
<i>p</i> -value			.005	.366
Medical service providers	Dental clinic	98	2.90 ± .432 ^a	4.11 ± .437 ^b
	Dental clinic (joint)	42	2.96 ± .520 ^a	4.40 ± .263 ^c
	Dental hospital	33	3.32 ± .700 ^b	3.94 ± .404 ^b
	General hospital	25	3.23 ± .482 ^b	3.68 ± .264 ^a
<i>p</i> -value			.000	.000

^{a,b,c}=Duncan.

합병원 25명 순이었다. 포커싱적 태도 점수는 대학원 졸이 3.26점, 대졸 3.08점, 전문대졸 2.93점으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보였고 치과의원 근무 2.90점, 종합병원 3.23점, 치과병원 3.32점으로 병원에 근무하는 경우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p < .001$). 직무수행능력은 기혼 4.05점, 미혼 4.11점으로 미혼인 경우 높은 점수를 보였고 나이에 따라서는 31세 이상이 4.23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포커싱적 태도, 직무수행 능력 차이

대상자의 포커싱적 태도는 평균 3.02점으로 하위영역별로는 적절한 거리두기 3.41점, 체험과정 수용과 행동하기 2.98점,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기 2.95점, 체험 지각하기 2.80점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수행능력은 평균 4.09점(5점 만점)으로 하위영역별로 진료협조가 4.21점, 병원경영관리 4.20점, 구강보건의교육

4.01점, 예방치과처치 3.87점으로 진료협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2).

3.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과 직무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

Table 3은 직무수행능력과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무수행능력은 포커싱적 태도의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기($r=0.161$), 적절한 거리두기($r=0.229$)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기는 포커싱적 태도($r=0.652$), 체험 지각하기($r=0.637$), 적절한 거리두기($r=0.253$)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체험과정 수용과 행동하기는 포커싱적 태도($r=0.534$), 체험 지각하기($r=0.354$), 적절한 거리두기($r=0.350$)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체험 지각하기는 포커싱적 태도($r=0.928$), 적절한 거리두기($r=0.452$)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적절

Table 2. Focusing manner and job performance of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Items	Mean ± SD
Focusing manner	Experiential attention appreciations	14	2.95 ± .630
	Experiential acceptance taking	10	2.98 ± .590
	Experiential awareness	5	2.80 ± .563
	Keeping appropriate distance	6	3.41 ± .533
	Total	35	3.02 ± .533
Job performance	Oral health education	10	4.01 ± .435
	Preventive dental care	8	3.87 ± .592
	Assist with dental treatment	13	4.21 ± .422
	Administrative management	8	4.20 ± .538
	Total	39	4.09 ± .435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focusing manner and job performance

Characteristic	Job performance	Focusing manner				Focusing manner
		Experiential attention appreciations	Experiential acceptance taking	Experiential awareness	Keeping appropriate distance	
Job performance	1					
Experiential attention appreciations	.161*	1				
Experiential acceptance taking	.062	.034	1			
Experiential awareness	.093	.637**	.354**	1		
Keeping appropriate distance	.229**	.253**	.350**	.452**	1	
Focusing manner	.068	.652**	.534**	.928**	.685**	1

* $p < 0.05$, ** $p < 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4. Related factors of the job performance

Variable	B	SE	β	T	p-value
Constant	4.014	.185		21.685	0.000
Focusing manner	.135	.059	.166	2.282	.024*
Age (yrs)	.075	.040	.152	1.863	.064
Education	.016	.050	.028	.323	.747
Medical service providers	-.154	.029	-.381	-5.233	.000***
Marital status	-.152	.076	-.156	-2.006	.046*
Adjusted $R^2 = 0.580$ $F = 6.188$ ($p < 0.001$)					

* $p < 0.05$, *** $p < 0.001$.

한 거리두기는 포커싱적 태도($r = 0.685$)와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4. 직무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상치과위생사의 직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Table 4와 같다. 다중 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

과 다중 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여 회귀분석이 가능하였다. 직무수행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근무기관형태($\beta=-0.381$), 포커싱적 태도($\beta=0.166$), 결혼유무($\beta=-0.156$), 연령($\beta=0.152$)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 근무기관형태와 포커싱적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5$)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58.0%였다.

IV. 고찰

본 연구는 임상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포커싱적 태도와 직무수행능력의 관계를 확인하고 포커싱적 태도를 강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개선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포커싱적 태도는 5점 만점에 3.02점으로 이는 한국판 포커싱적 태도를 척도로 개발할 당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3.08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Yoo and Yu, 2017). 하위영역에서는 적절한 거리두기 3.41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체험 지각하기 2.80점으로 가장 낮게 타났는데 Joo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체험과정 수용과 행동하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가장 낮은 영역은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기’로 나타났다. 대학생과 다르게 임상치과위생사가 체험 지각하기 점수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이유는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부드러움, 친절함은 물론이고 세심한 배려 등이 강조되고 환자와 직접 소통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하는 문제들로부터 자신의 상태를 지각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 된다.

직무수행능력은 평균 4.09점(5점 만점)으로 Hwang(2020)의 3.72점과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하위영역별로 진료협조가 4.21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예방치과처치 3.8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31세 이상일 때, 기혼일 때 직무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wang(2020)

의 연구에서 직무수행능력 하위영역 중 진료협조가 3.7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1세 이상일 때와 기혼인 경우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낮은 연차의 치과위생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는 경력이 낮을수록 치과진료협조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전문적이고 양질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업무 환경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 요인과 직무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 요인 중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기’ ‘적절한 거리두기’는 직무수행능력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Oh(2020)의 포커싱적 태도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을 잘 조절하고 경감시켜 간호업무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부 일치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치과위생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하여 임상현장에서의 숙련된 치과위생사 역할과 실무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Kim, 2007). 어떤 문제에 대한 신체에서 느껴지는 반응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인식과 정서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포커싱적 태도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임상치과위생사의 직무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는 근무기관형태, 포커싱적 태도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은 임상치과위생사의 직무수행능력을 58.0% 설명하였다. 즉 임상치과위생사의 포커싱적 태도가 높이는 것이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전략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임상에서 환자의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한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이 직무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Kim and Lee(2014)의 결과와 일부 유사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포커싱적 태도가 임상

치과위생사의 직무수행능력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없었으므로 다른 선행연구와 비교할 수는 없으나 포커싱적 태도가 높은 사람은 어떠한 문제 상황에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회복력과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다(Yoon, 2004). 포커싱적 태도가 높은 임상치과위생사일수록 훌륭한 직무수행능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임상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포커싱 체험 심리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시하거나 대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문제 상황을 자각하고 그 상황을 인정하며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극복하여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시킴으로써(Na and Kim, 2016) 치위생 직무수행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일부 지역 임상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전체의 포커싱적 태도와 직무수행능력으로 해석하기에 제한점을 지닌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직무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 특성의 결과와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소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치과 의료기관과 치위생 교육에서 포커싱적 태도와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본 연구는 U시와 B시에 소재한 임상치과위생사 198명을 대상으로 포커싱적 태도가 직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포커싱적 태도를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과위생사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포커싱적 태도는 학력수준이 높고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경우 높은 점수를 보였고($p < .001$). 직무수행

능력은 미혼이고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보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2. 직무수행능력에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 요인은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기 $r = .161$ ($p < 0.1$), 적절한 거리 두기 $r = .229$ ($p < 0.01$)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 직무수행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근무기관형태($\beta = -0.381$), 포커싱적 태도($\beta = 0.166$), 결혼유무($\beta = -0.156$), 연령($\beta = 0.152$)순으로 나타났다.

VI.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21년도 춘해보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VII. 참고문헌

- Cho YS. Clinical dental hygiene education and practice based on dental hygiene process. *J Dent Hyg Sci* 2011;11(3):135-54.
- Choi HJ. Public health nurses' decision making models and their knowledge structure. *J Korean Acad Nurs* 2001;31(2):328-39.
- Hwang HR, Kim EK, Cho YS. Association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grade point average score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2012;12(1):7-13.
- Hwang YH. Impa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decision making on job performance among dental hygienists [dissertation]. Gwangju: Kwangju Women's University; 2020.
- Joo ES. A practical guide to focusing. *Korean J Psychother* 1998;12(1):90-9.
- Joo ES, Choi SW. The effect of group therapy using focusing on somatization, negative affect and alexithymia of female college students. *Korean J Psychol Gen* 2013;32(4):777-802.

- Joo ES, Shin SA, Kim BS, Kim JY. Modification development and validity analysis of Korean focusing manner scale (KFMS). *Korean J Psychol Gen* 2011;30(4):1111-28.
- Jung ES. Effects of clinical nurses' job stress and emotional labor on job satisfaction [dissertation]. Seoul: Catholic University; 2014.
- Kim JH. Development of job performance assessment tool for dental hygienists [dissertation]. Gyeongsan: Yeungnam University; 2013.
- Kim JH, Han SJ.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job performance in dental hygienist. *J Korean Soc Dent Hyg* 2016;16(6):1079-92.
- Kim JH, Sung HK, Kim HJ.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solving ability of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2014;14(3):356-63.
- Kim JY.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job satisfaction in clinical nursing [dissertation]. Seoul: KyungHee University; 2007.
- Kim SH, Lee MA. Effects of emotional labor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turnover intention in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 2014;20(3):332-41.
- Kwon SM, Chon KS. Relationship of clin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radiology students. *J Korean Soc Radiol* 2018;12(3):359-66.
- Lee HS, Jang KA.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e of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2016;16(5):331-8.
- Lee JE, Lee SY, Kim HJ. The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n the work performance assessment of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2017;17(4):275-82.
- Monn K. The effects of focusing manner on emotional regulatio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with emotional labors [dissertation]. Seoul: DukSung Women's University; 2015.
- Na BJ, Kim EJ. A study on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 of work-family conflict in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labor, occupational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J Korean Acad Nurs Adm* 2016;22(3):260-9.
- Oh EY. A study on relation of between focusing manner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 Digit Converg* 2020;18(9):239-48.
- Park JH, Chung SK.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resilience on nursing performance in university hospital nurses. *JKAIS* 2016;17(10):236-44.
- Park WS.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empowerment, and nursing performance. *J Korean Acad Nurs Adm* 2002;8(2):335-46.
- Song OS, Joo ES. Differences in stress coping behavior depending on focusing manners among university students. *J Hum Underst Couns* 2010;31(2):329-47.
- Son YJ, Park SK, Kong SS. Impact of internal marketing activity, emotional labor and work-family conflict on turn-over of hospital nurses. *J Korean Clin Nurs Res* 2012;18(3):329-340.
- Yoo SY, Yu JH. The influence of focusing manner and emotional labor on nursing performance of clinical nurses. *J Korean Clin Nurs Res* 2017;23(3):341-9.
- Yoon J.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dissertation]. Seoul: Catholic University; 2004.